기회의 땅에서 만들어온 중국교화 30년

원기78년(1993) 북경과 연길, 심양에 세명의 출가교역자가 정식으로 파견됐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원기107년(2022) 현재 원불교 중국교구에는 11개 교당에 12명의 출가교역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지 특성상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중국교구는 차곡차곡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에 〈원불교신문〉에서는 중국교화 30년을 맞이해 지난 시간에 담긴 의미를 살피고, 중국교화의 미래를 그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좌담에는 김길선 중국교구장, 조상도 홍콩교당 교무, 김도원 중국교구교의회의장, 제종석 청도교당 교도회장이 참석했다. 해당 좌담은 7월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줌(ZOOM)으로 열렸다.

중국교화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조상도: 원기36년 장적조 선진이 만주기반으로 동북지방 순교 활동을 했던 역사가 있다. 정식 중국교화 기점은 원기78년(1993)이다. 원기77년(1992) 한중수교 이후 이듬해(원기78년)에 교정원 인사정책에 따라 북경, 연길 등에 출가교역자 사령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길선: 30년 동안 중국에 다녀간 교무님들이 42명이다. 중국교화 30년을 타님포인트로 삼고자 한다. 지난 분야의 활동은 어떻게 해나가고, 교역자 사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 관점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김도원: 원불교가 미국종법사를 만들어내는 시대로까지 발전했음에도, 중국은 30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채 정체된 느낌이다. 그만큼 중국은 미국과 차이가 있고, 종교적이고 법률적인 제한도 많은 환경이다. 하지만 중국은 분명 기회의 땅이고, 지금까지의 30년이 후대에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

제종석: 중국에 온 지 올해로 16년 차다. 중국교화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함께한 셈이다. 제가 중국에 들어올 땐 중국교화가 교민사회 지변에 스며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았다. 원기100년을 준비한다고 각 교당별로 으샤으샤하던 분위기도 경험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언젠가 이 씨앗이 중국에 퍼져나갈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다.

현재 중국교구 내 활동이 궁금하다.

김길선: 중국교구는 현재 교당 11개, 12명의 출가교역자가 근무하고 있다. 기관으로 연변산동유치원이 한국종교교사 모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운영 16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연변 삼동인터네셔널도 원기97년부터 4년간 활동했었다. 훈춘 특수보육학교, 경신 피향소학교 건립 후원 등의 활동 기록도 남아있다.

제종석: 연변 등에 삼동사회복지시설 등을 초창기부터 설립해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용품 지원, 후원금 등의 도움을 10여 년 간 진행해온 사례가 있다. 청도교당은 산동지방에서 나무된 이수라는 지역에 위치한 마랑소학교와 결연을 맺어 학비, 학용품, 의연품 등을 지원하고 매년 교도님들과 학교에 방문해 문화행사도 했다. 이후 교민들이 힘을 합쳐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운학교' 라는 국제학교를 설립했는데, 교당과 교도님들이 현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 올 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수록 지역사회에 나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문화원을 개설했다.

김길선: 베이징교당 문화원에서는 현재 어린이 요가와 발레가 진행되고 있다. 교당을 비우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연길교당 박도광 교무의 경우 현지인 출신으로서 현지 밀착형 교화를 하고 있다. 등산회에 참가해 지역민들과 인연을 맺고 원불교를 알리는 교화를 한다. 삼동인터내셔널을 통해 장애인 2명의 수술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받게 한 적도 있다. 향주교당은 다도 특화 교화를 하고 있다.

조상도: 교구 내 11개 교당에서 4축 2재와 정기법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향주교당은 다도와 명상을 결합한 정념다도 특화 교화, 청도교당은 요가 등 문화원을 통한 교화, 저는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체육활동 등을 통해 인연을 꾸준히 맺어가고 있다.

김길선: 교무가 움직이는 것은 곧 원불교 법당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 활동으로 자꾸 만나면서 화산이 된다.

중국에서 공부와 교화를 하며 가장 기쁘고 보람됐던 순간이 있단다.

김도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기103년(2018) 예 경산종법사님이 중국교구원회의 초대로 중국에 일주일간 머무셨을 때다. 원불교 교도로서 종법사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오랜 시간 모시고 생활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베이징교당 1호 법호인 이 된 것이다. 놀랍 상아 "중국에 왔으니 '중산' 이면 좋겠다" 고 했는데, 실제로 법호가 그렇게 나왔다.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제종석: 중국에서는 교도님들이 앞요일 법회만 기다리기 때문에 교도 수는 적어도 출석률이 높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잘 모였다. 춘절(설)에 한국으로 귀국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회에 성지순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원기94년(2009)에 한국에서 설을 지내고 25여 명이 모여 성지순례를 하고 종법사님도 뵈다. 청도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상주한다. 청도교당을 거쳐 간 분만 150명이 넘는다. 그 인연들이 다시 잘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청도에서 법호를 받았다. 중국에서 법호를 받고 보니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

조상도: 개인적으로 천도재를 지냈을 때의 기억이 많이 남는다. 현지인 남편을 잃은 여자 교도님이었는데, 천도재를 지내면서 어려운 마음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무로서 보람을 크게 느꼈다.

김길선: 중국교화 초창기에 법당이 없을 때, 공원을 옮겨 다니면서 비닐 같은 천을 바닥에 깔고 법회를 봤다. 참 좋았다. 그렇게 법회를 4~5년간 보다가 법륜공 사건이 터져서 공원에서 모이지 못하게 됐고, 교당을 마련하자고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공심으로 하니 돈이 다 모아져서 교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교역자의 생명은 법회에 있다고 하는데, 북경에 있으면서 4축 2재나 법회를 보지 않은 적이 없다. 〈원불교 교전〉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출판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굉장한 일이다.

김도원: 원불교 100주년기념대회 때 중국인 10명, 재중동포 30명, 한국인 교도들 129명 등 170~180명이 참석했다. 행사 후 성지순례까지 했다. 한족들이 함께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교화 30년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길선: 일단은 지난 30년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역사적 서류 정리, 중국 교화 초창기의 교화 이야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 타이틀을 〈중국교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정했다. 그다음, 이론적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교화포럼 내지는 학술발표를 하고자 한다. 중국교화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리적, 사회적, 종교역사적 흐름에서 중국에 원불교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연구도 의뢰하고자 한다.

김도원: 30년 동안 어떤 교화를 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중국교화 역사에 오랫동안 함께 한 교구장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 코로나19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기록을 잘 남겨서 향후 더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 만리장성의 벽을 하물고 교화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

제종석: 원불교에서도 36년을 1대기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도 이제 1대를 지나가는 시점에 있다. 한국에 가면 그동안 교당을 거쳐 갔던 분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험한 중국교화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한다. 지금이 기록을 남기는 데 적기다.

조상도: 홍콩은 올해로 19년이 됐다. 봄과 19년 앞에도 현지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30년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더 남다를 것 같다.

현지에 가장 반응이 좋고, 현지에 가장 잘 맞는 원불교 가르침은 무엇인가.

제종석: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굉장하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에 부딪힐 때마다 "왜 이럴까" 하는 원망심이 많았다. 하지만 살면서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갇은 동포이고 한집안이라는 것을 수용하면 서로 화합이 된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내용의 교리를 넓혀가야 한다.

조상도: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가 중국에 잘 맞는 법문이다.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이 법문을 보여주면 좋아한다. 또, 불법을 공부하는 교당이 사내에 나와 있다는 점도 좋아한다.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무가 자기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한다는 점을 신선하게 느낀다.

김도원: 중국 사회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금주의 사상과 자기중심주의다.

중국도 언젠가는 문화 1등국이 되기 위해 종교를 개방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이나 법문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마 가장 어려운 교화의 여건과 환경을 가진 곳이 중국 아닐까 생각한다.
어렵기 때문에 뭔가 얻어졌을 때 더 짜릿함을 느낀다.

※ 중국교화 30년 좌담 전문은 원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 정부도 "종교밖에 없다"고 한 한다. 작금의 상태를 보면 중국도 언젠가는 문화 1등국이 되기 위해 종교를 개방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이나 법문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중국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불교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키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김길선: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 절대자에 의한 피존재자로서가 아니라 진리성에 바탕한 개체의 존중성이라는 부분을 특이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잘 한다. 중국정부에서 국경절에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이는데, 최근 '정신문명'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 교리의 '정신개벽' 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현지이로 정식 출판된 〈원불교 교전〉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들었다.

제종석: 원기91년 8월에 '원불교 교전 (중문판) 출판기념 학술회' 가 국제무역의 호텔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경대학에서는 '출판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가 열렸다. 학술적 활동은 종교정책에 제약이 없다. 학술 방면으로 접근해 나가다 보면 중국에서 원불교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길선: 〈원불교 교전〉 중문판 총 감수를 담당한 북경대학교 종교연구소 루우열 교수님은 중국불교의 석학이다. 김경전 교수(중앙민족대학 교수, 재중동포)가 번역을 하면, 그 내용을 루우열 교수가 현지에 맞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번역한 내용을 현지에 맞게 검수했더라도 종교서적이라 다 검토를 받아야 했다. 종교문화출판사에서 출판이 되면 서적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1차 〈원불교 전전〉 6권 권을 인쇄해서 3천 권은 신화사(한국의 교보문고와 같은 곳)에서 팔았고, 3천 권은 우리가 인수해서 배포했다. 앞으로 중국에서 종교활동이 인정되었을 때, 원불교는 사상적으로 인정받은 책이 준비돼 있다고 내세로 보여줄 수 있다. 중국에서 이제네 혈인성사가.

중국교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자.

김길선: 개인적으로 현지화라는 말보다, 토착화라는 말을 좋아한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에게 종교와 사상을 강요하면 불법이지만, 자기들끼리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인을 교무로 키워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한족 교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토착화의 제1과제다. 두 번째는 법인화다. 현지 법인화를 하게 해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다. 또, 중산님(김도원)이 만든 장학재단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장학재단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김도원: 중국인을 교무로 만드는 게 어렵다면 그 전 단계로 재중동포 중에 교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는 향후의 중국교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담장 교육을 시작해도 10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원광대학교와 중국의 불교대학이 학점교류나 학교교류 과정을 만들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동시에 중국교화에 서원이 있는 예비교무를 지원해 배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제종석: 중국교화 중 가장 힘든 부분이 교무님들의 지위관계, 곧 비자 문제다. 어렵게 하면 교무님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법인화' 다. 결국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중국에 외국 투자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조상도: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시민의식은 한국 사람이 훨씬 낫다' 는 인식이 있다. 한국 사람들끼리도 '원불교 교도는 수준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종교인들도 원불교인들에게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온다. 모든 게 선진님들이 쌓아온 덕분이라 생각한다. 원불교만이 가진 진근감과 원만성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에서 함께 공부하는 재가출가 교도님들과, 한국의 재가출가 교도님들께 하고픈 말이 있다면.

제종석: 청도는 중국의 우리 교포와 재중동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재중동포 자녀들이 문화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긴다면, 후에 그들이 중국에 돌아왔을 때 교화로 연결되리라 본다.

조상도: 이곳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부빙' 이라는 말이 딱 맞다. 현지 입장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곳의 관습과 법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해야 한다. 선교 활동을 거칠게 하는 목사님은 추방당하기도 한다. 또 많은 어른들께서 중국을 교화의 터전으로 언급하셨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다면 교화하는 데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다.

김도원: 아마 가장 어려운 교화의 여건과 환경을 가진 곳이 중국 아닐까 생각한다. 비자도 내주지 않고, 한국인 외에 현지인을 교화하면 추방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와 있는 교무님과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 어렵기 때문에 뭔가 얻어졌을 때 더 짜릿함을 느낀다. 원불교의 개척정신, 초기교단 정신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땅으로서 중국만 한 곳이 없다.

김길선: 중국교화는 가성비가 좋다. 한국 국민은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4억 인구가 교화 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고 초월한 입장에서 공부심으로 해나간다면 어느 때인가 임원화가 피어나리라 생각한다. 제가 도 출가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곳에 작복 하는 데 힘을 싸주심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현지에서 교화하는 교무님들 역시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 주면 좋겠다.

진행·정리=장지해 기자 okjj@wonnews.co.kr